

교회 회 표

신관인 예배
학익인물 앞
면목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골로새서 3: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총헌교회 THE WEEKLY CHONGHŬO HY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사순절 새벽기도회

총헌교회가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간이다. 하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아키며, 진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는 믿음의 시간인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고구별로 정해진 날짜에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를 권장하고 시행중이다. 총헌의 모든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회개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소망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다름과 영적 각성의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하여 동참하자.

사순절에 관한 논의

「사순절, 40일 부활절 전까지」를 금하는 40일간의 말하는데, 3세기까지는 부활절을 예배하는 이 금식 기간이

사순절(四旬節 ; Lent)

대체로 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것은 「유세바의 죽음」에 의해 기록된 「히레나우스의 회신」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며, 사순절을 기록하는 「테라코스테」라는 용어는 주후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교회헌약」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다. 「사순절」을 동방교회에서는 7주 동안 지켰는데, 주일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역시 36일뿐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4세기 초에 8주 동안 매주 5일씩 금식으로 실제 40일 금식기간을 준수하였다. 초기의 수세기 동안은 금식의 주기가 매우 엄격하였다. 하루 내내 저녁이 되기 전까지 한 끼의 식사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로 금식기간은 완화된 것으로 3사과로 양겨져 있으며, 15세기 때와서는 정오에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관습이 되었다. 이러한 사순절의 기간 동안 교회는 금식을 금하고, 자살을 배움과, 평소보다 더 많이 종교적 행사들에 참여함으로 새 「회개」의 절기「로 지키고자 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주의(4)

“신령과 진정으로”(요 4:24b)

신령한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위한 두 번째 요건으로는 예배자의 문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이라는 본방한 의무이다.

신령은 인종이나 장소의 탈피를 의미

우선 ‘신령’이라는 말은 ‘인종’이나 ‘지방’ 또는 ‘장소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피부 색이나 지역 또는 지리적인 현상들에는 관계없으며, 모든 족속과 민족이 한 백성임을 뜻한다. 헨드릭슨은 예배는 ‘경의를 표한다’(will respect)란 뜻에 그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는 말에 대해 합당한 예배는 신에게 의한 의미로 제한 받아서는 안되며, 이 장소에서 기도하든 저 장소에서 기도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요 4:20). 난 너를 도우려고 너의 가운을 벗기 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인성에 직면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너는 장소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다(말씀 주간). ‘신령’이라는 단어가 인종이나 장소를 탈피하여 드러내는 예배는 사실에 대하여 박손신 박사는 ‘신령’이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한 ‘아버지께 예배할 을 기리기’며, 하나님은 어떤 지방, 어떤 민족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신이 아니라 단단하다. 사실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를 아버지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예배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준다.

신령은 형식이나 의식 중심의 탈피를 의미

두 번째로 ‘신령’이라는 용어는 형식이나 의식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참된 예배란 형식과 의식 이상의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우상적으로 요구됨을 뜻한다. ‘신령’이란 진정이라는 말들과 더불어 다양한 해석과 전개의 제시되어 왔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형식과 수단과는 반대되는 예배의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교제하는 아들들도 의식이나 물질적 재물보다 마음에 있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전 2:17, 그러므로 ‘신령’이란 말은 영혼과 중심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하며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외부적인 형식과 구미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외부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하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관한 의논과 논쟁의 필요성을 제거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이예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결정해야 할 선택이 없었던 셈이다. 돈이나 포부나, 권력이나 직위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숭배할 것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헌신과 호감과 숭배의 대상인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육신에 속하는 단순한 외적인 의식과 반대되는 것이다. 빛으로 밝아진 정신과 애정을 가득 담아 마음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의 어떤 방식으로 진리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럴 듯하게 꾸미거나 아니라 충심으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의무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려주는 것, 기독교를 단지 형식적인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것, 또한 유대인 식의 그림자들과 의식들, 그리고 그들 방식으로 예배를 부흥시키거나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도입시키려 하는 것-이러한 종교적인 가르침은 무엇인든지 그 구절을 감안해 볼 때 극히 비성경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신령은 마음의 중심을 의미

세 번째로 ‘신령’이라는 용어는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배자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로마서 8:29이하여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도우시기 사시나, 여기에 나오는 신령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같지는 않다. 예수님의 의도는 ‘인간적인 신령’이다. 인간은 예배할 때 의욕으로 정당한 장소, 정당한 자제를 취할 것은 물론이고 마음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경외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신뢰와 희망에 찬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다만 도대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즉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불꽃이 원래 유래된 하늘의 원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로 솟아오르는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행동’이다. 즉 예배는 새로운 성품이 존재함을 증거하는 세 가지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로, 예배는 ‘구속된 사람의 행위’이다. 셋째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마 15:8). 예배는 경배와 감사를 표현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구속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노래의 매력에 ‘철교’를 대체해 오고 있다. 우리의 공중예배의 많은 곳에서 보는 눈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는 지극히 표적이 된 셈이다.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단절하며, 조종하고, 경건하며, 예배자가 하나님 그분께 전념하는 것이다.

신령은 성령의 감화를 입은 마음을 의미

네 번째로 ‘신령’이라는 용어는 ‘성령의 감화를 입은 영혼’을 의미한다. 예배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감동되어서와 감화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예배자 자신의 ‘영’과 그 영적 본성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골 1:3),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영을 의미한다(골 3:14, 16, 25). 누가복음 10:21에서도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데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 성령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들의 ‘영’ 속에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나(골 3:16), 그러나 인간의 영은 영혼의 행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과 교제하신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의, 이성적인 영, 그리스도의 영적 본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영적 상태 곧 성령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 결단하는 영혼의 상태인 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의미

다섯 번째로 ‘신령’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하나님께서 영(靈)이시므로 예배자는 마땅히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는 신령으로 드리는 자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 진정한 예배를 선별하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인간의 예배는 그가 섬기는 신에 따라 결정된다. 즉 최고의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그 존재자에 대한 예배의 양식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지성의 완전한 추상물도 아니며,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단순한 형상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해 계시며, 스스로를 그리스도들로 통해 계시하여 오셨다(요 14:3).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들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경외심과 감사함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다.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그 영혼들은 거룩한 성령과 사랑과 우애를 기쁘게 나누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숭배하여야 한다. 물질적인 제사나 제의적인 태도, 금욕주의적인 속죄, 그 밖의 어떤 단순한 의식 또는 물질적 매개물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진다. 또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눈과 같이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에게 나가지 않으며, 인간의 눈에 아첨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러한 아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을 무시하게 되는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

HE BELIEVED GOD

(Romans 4:13-17)

"For the promise to Abraham or to his descendants that he would be heir of the world was not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faith...."

Last Sunday, the first week of Lent, I preached on the word of faith and the end of the law for righteousness. Today, the second week of Lent, the focus is on Abraham's faith. Abraham's faith was apart from works, circumcision, and the law. He believed God, and God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4:3). His righteousness came by faith alone. He is our proof that faith-righteousness not only existed before Christ's coming, but before the law. His faith demonstrates how God's great plan of salvation always requires faith. Let's look at what the Bible has to say about him, for it was written down for our sake.

Under the curse of sin, humans return to the dust from which they came. It is a hopeless condition. When God called Abraham, and he believed, we see real hope. This hope was mentioned in the Garden of Eden (Gn. 3:15), and given to Abraham in the form of a covenant (Gn. 15:18). After Abraham died, God's promise carried through to Isaac, then Jacob, all the way to Moses.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during the hundreds of years from Abraham to Moses (the time before the law), God had justified humans only by faith. The Mosaic Law, given to Moses at Mount Sinai, did not set aside the promises made to Abraham (Gal. 3:17). God gave the law to them as a means to show them the need for faith. "For the promise to Abraham or to his descendants that he would be heir of the world was not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faith" (v. 13).

Abraham's descendants (the Israelites) relied on the law for righteousness, not faith. They wanted to believe that living a good life was more important than God's promise. Hence, faith meant little to them. They didn't believe that God's promise was going to be done by the gospel. They didn't believe that only God's promise of the gospel would lead to righteousness. Romans 4:14 clearly tells us, "For if those who are of the Law are heirs, faith is made void and the promise is nullified" (v. 14).

Righteousness didn't come from the law, nor was it justified by faith plus keeping the law. Righteousness came by faith alone.

The law shows God's blessings and curses, "for the Law brings about wrath, but where there is no law, neither is there violation" (v. 15). In other words, if there wasn't any law, there wouldn't be any revealing of God's curses. The law shows us our sinfulness. It shows us that we cannot make it on our own; we cannot be righteous from it. Only the gospel brings righteousness. Only the gospel carries God's promise. Abraham believed in the gospel. He believed God. He did not practice law-righteousness. His righteousness was through faith. That's the basis of the righteousness of God and His grace.

Abraham was justified by faith, not by anything else. He believed God. He didn't proclaim his righteousness. God declared it! God gave him credit. Only God can proclaim someone to be righteous, not we. It wasn't Abraham's prayers, living style, or good deeds that made him righteous. God reckoned righteousness to him because he believed. That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Abraham believed God. He did not do anything to come to righteousness. He just believed.

What was Abraham's life like after he became righteous? The Bible doesn't give us a detailed and clear picture concerning Abraham's daily living practices. We know that sometimes he lied, like when he got scared and told a king that his wife was his sister. Surely, there were other instances of wrongdoing, but the point is that his right or wrong doings had nothing to do with his righteousness. Romans 4:5 says, "But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but believes in Him who justifies the ungodly,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The important thing was that he believed God. He didn't work towards righteousness. God gave it to him only because he believed. God justifies the ungodly. We can't justify ourselves. All we can do is to trust in God's promises.

Abraham was the father of faith, not the father of the circumcised. His righteousness came by faith, even though he was sinful. That's why real faith is by God. God called Abraham (Gn. 12:1). He called his family from despair to hope, from oldness to newness, and from death to life. Abraham heard God's call and immediately obeyed. He believed God, and the result was that he received righteousness and became the heir of the world. As such, whosoever believes in God are his descendants through God's promise. "For this reason it is by faith, in order that it may be in accordance with grace, so that the promise will be guaranteed to all the descendants, not only to those who are of the Law, but also to those who are of the faith of Abraham, who is the father of us all" (v. 16).

Abraham's faith, like ours, was spiritual, not physical. "(As it is written, 'A father of many nations have I made you') in the presence of Him whom he believed, even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into being that which does not exist" (v. 17). He believed in God's saving and creating power. His faith resulted in a spiritual change. Abraham practiced faith. Jesus practiced this same faith. God calls us to this faith. He shows us the eternal way. Even though this earth is filled with darkness and we are weak, Jesus calls. Let's believe Jesus. 🌱

아브라함의 믿음

사순절의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저는 '믿음의 말과 의(義)를 위한 율법의 마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나 할례 그리고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롬 4:3). 그의 의(義)는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前)에 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자입니다.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깨닫고 싶어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율법보다 앞 선 믿음의 언약

최의 저주 아래에서, 인간은 흠에서 태어나서 한 줌의 티끌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덴의 동산에 이 소망을 주셨으며(창 3:15),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창 15:18).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다가 모세에게 전폭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율법이 존재하기 전의 세월) 수 백년이 흘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언약을 헛되게 만들거나 파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갈 3:17).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필요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13절).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義)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아닌 율법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믿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들에게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자신들을 의로움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14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의(義)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믿음에 율법을 첨가함으로 정당화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義)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기초

율법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15절). 달리 말하자면, 만일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계기도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이를 수 있는 것, 즉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의로와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복음만이 의로움을 이끌어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하여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義)와 은혜의 기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나 삶의 양식 또는 선한 행위가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의로와질 수 있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 (롬 4:13~17)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김성관 목사

행위와 관계없는 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 그의 삶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매일의 삶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겁에 질려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실체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의 올바른 행동이나 그릇된 행동이 그의 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5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그러므로 그의 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할례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창 12:1).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16절).

영적인 변화

우리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17절).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본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게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

외선부 방글라데시

성수동, 광주, 의정부 등을 다녀보지만 추운 요즈음은 방글라 친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오랫동안 1명 내지 2명의 출석을 기록했던 외선부 방글라데시팀은 지난 주부터는 계속 출석률 0%를 기록하고 있다. 통역자는 아직 땀방울(방글라데시어)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설교를 번역해 오지만, 그 통역을 듣는 사람들은 방글라 친구들이 아닌 방글라데시팀 교사와 간사들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넘치는 은혜로 독립하는 다른 팀들을 바라보며 부럽기도 하다. 옆에 내 옆진 격으로 몸까지 따라주지 않는다. 자리에 누워 주님께 묻는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다시금 말씀을 붙들려 바동들거린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절망의 한 가운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방글라데시팀의 답답한 상황과 점점 지쳐가는 나의 건강 가운데에서, 최인임을 알지만 그 죄에 대해 애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나의 강박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방글라데시팀의 간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간사한 간사이다. 지금 나에게 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과 주님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분간 방글라 친구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전할 복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분만을,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 안에 잠기어 그분의 역사에 이끌리는 비전을 마음에 그려본다.

98년부터 지난 2002년까지 방글라데시를 품고 기도하며 애통해 하던 수많은 충현의 성도들의 열정이, 사랑이, 동역이 필요하다. 충현의 성도들이 그토록 만나려 하고 애대개 찾던 방글라인들이, 방글라데시가 아닌 이 땅에도 복음의 손길을 애대개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들을 품었던 우리들의 사랑과 소망이 이곳 외선부에서도 이어지기를 소원한다.

(이종원 간사)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10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충현은 단기 선교팀을 아홉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역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불가리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불가리아는 정교를 믿는 국가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보니 어떤 정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차 찾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현재 9명 정도의 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 지역장 중심의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팀장으로서 대원들을 이끌고 가야 하며 나의 책임 하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생각마저 정말 부담감이 큼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적어 주세요.

우선 불가리아가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4.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구절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렘 1:7). 우리가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나 주님이 동행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박광성
6교구 3지역장

(열정적 기자)

젊음, 우리는 복음의 사도 1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가족과 강도들을 끌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강도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고교시절.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희미해 갈 무렵,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골 15:20) 라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

10여명의 대원들의 성격이 다르고 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힘든 면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로서 갈등을 해결하였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해 가며 우리의 속 사람이 성숙할 수 있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되었다. 몇몇의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고,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만났던 대부분의 현지 인들은 우리 선교대원들을 잘 반겨주고,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 할 때마다 그들의 단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였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는것을 감사했고 가슴이 벅찼다. 마라게 게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현지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현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기도는 했었지만, 그저 막연하기만 했었다.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선교에 대한 나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복음증거에 대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에 감사드린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지금도 준비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한다.

(선전주 기자)



조우현 (청년1부)

선교위원의 단기선교부 실행위원 임명 및 퇴임

분과	면	임명
진행본부 진행본부장 실행위원	김영수 장로 정태동, 박종철, 한용배	이병학 장로 엄복식, 동방용운, 임연수, 지영준, 석영식, 이성해, 김정은, 이수재(집), 박성명, 김영학, 정은환, 최홍순, 김지은, 이승우
지원본부 실행위원	이복희, 김동우, 권오인	김민수, 정숙자, 권현구, 이병희, 강신영, 박환희, 배재해, 김승기, 정재모, 황윤성, 김대현, 정애선, 이명희, 김연태, 정옥련, 이유주, 최민석, 김대환, 김정희
교육훈련본부 실행위원	이인영, 이상성, 현준봉 이복희, 정영길, 강남식	이호일, 정영길, 박봉선, 노태경, 심하진, 정태동, 김지호, 박경진, 이부성, 채홍표, 이기숙, 최세진, 문홍우, 김복수, 송영준, 이경재, 최남하, 이세영, 이윤현, 한재준, 이정훈, 한애현, 남용철, 태명자, 백종현, 이승우, 이홍우, 박미소, 강종목, 김현배, 이강근, 이숙희
기도회 본부 실행위원		강두형, 조홍진, 이현숙, 정주익, 이새별, 김영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엄 현 민 (대학부 교사)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 성도들은 예배 전마다,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또 왜 찬양대는 예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혹은 예배 후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주중에도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는 것일까? 말씀을 보는 중에 이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라"(시 148:1-5).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당연하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가? 없다. 나도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나시 질문할 것이 생각이 났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흠이 있고 더러운 것을 받으시지 않는데 나는 얼마나 더럽고 흠이 많은지 생각해볼게 되었다. 더군다나 흠이 없고 깨끗한 어린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매주 예배에 들어오고 찬양대에 설 때 자랑, 욕심이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소망해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내 목소리와 모습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었다.

"나 행한 것 쟁편이니 주 예수께 비유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소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332장).

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또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행하기를 기도한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권리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 4:11).

새가족국에서의 역할

김한바다 (대학부 팀장)

대학부의 새가족국을 섬긴 지도 어느새 삼개월이 되었다. 2년 전 남아공에서 돌아와 대학부에 몸담을 때만 해도 신입부와 나는 전혀 상관이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와 관계없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새가족부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사람을 마주하였다. 처음으로 말은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는 질문을 하자, 나 역시 생전 처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고민하였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정말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었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그 근거는 성경에 있으며 나는 그것을 믿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대학부 사랑하심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또한 새가족부이다. 매주 6~7명, 많을 때는 10여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온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자 들것에 들러온 중풍병자를 가로막았던 군중들처럼. 그러나 나의 모습을 가운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보았다.

우리 새가족국은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동지가 되려고 노력하려 한다. 세상의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 동지 된 우리 안에서 주님께 믿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의 동지가 되기를 기도한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며 지붕까지 뚫고자했던 그들의 긴박한 심정으로.

장학생 인터뷰 3

1. 천국입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입권이란 주님의 선한 칭기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시나요?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속하시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원합니다.

3.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저는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진실되게 대가하려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국 용 (대학부)



내가 어디있느냐?

이 태 윤 (대학부)

대학교에서 O.T를 다녀왔습니다. 놀기보다 잘 알았지만 신장적으로 있을 수 없는 2박3일이었지요, 솔직히 많이 두러웠었습니다.

첫째날 오전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오늘날 먹고죽자'고 외치는 선배들이 창고로 수백 박스의 소주와 맥주를 나르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워 프로그램 내내 줄거울 수 없었고, 속으로 기도도 해왔지만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때 창세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디있느냐" (창 3:6).

미리 속에 이 말씀이 스쳐지나갔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란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더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연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 받기만 원하던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던 제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친구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소주1박스, 맥주1박스가 왔고, 선배가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때 욕기를 내서 "선배님 꺾으시지만 크리스천이어서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나는 "야! 나도 교회다니거든? 그 당 마실!", "자, 그러지 말고 딱 한잔만!", "아~ 손이 민망하네, 선배가 따르는데 안 받나?"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외위의 말이 나오더군요. 멋있다고요, 너 참 대단하고, 남들 다 마시는데 토신 있게 안 마신다고 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라고, 남 자랑하면 그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죠. 저는 소외되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 뒤로 그 많은 사회대 03동기들에게 '술 안 먹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일광도 모르는 사람이 "아, 그 술도 안 드신다는 분이시죠?", "아, 그 주류를 일체 취급 안 하신다는 분?"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중에는 제가 한번 No!함으로써 누가 술을 권하든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친구는 크리스천이어서 술 안 마신대요."라고 하며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라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구역항상

주의 만찬(고전 11:23-26)

3교구 대지 1,2구역 / 구역장 박희수 집사



지금까지 많은 성찬에 참여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의 만찬이 자신과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얻어, 이번 성찬이 특별히 기대된다. 구역장의 고백으로 말씀의 교제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죄책감을 통해 숙연한 마음을 갖고 회개한다. 매 성찬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또 긴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성찬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잊어버린다. 성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의 포도주는 단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바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약이란 죄의 사람, 즉 구원의 언약인 것이다. 때문에 성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기쁨과 화회의 축제인 것이다. 즉, 성찬은 어떤 의식이라기 보다 밀접한 만남이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이다. 구역원들은 성찬 때마다 이러한 관계,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성찬, 이 밀접한 관계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떠올리라고 서로 권유했다. 여기에 구역장은 "그렇다고 성찬 자체가 우리를 위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주인 공이며 예수님이 기념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 신앙고백을 나눴다. '성찬식을 통해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고, '영화 뱀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는 장면이 꼭 오늘 본문에서 나눴듯이 우리의 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 개개인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다.

처음 '주의 만찬'의 제목을 갖고 교제할 때만 해도 성찬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가 성찬이 개개인들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로서 삶 속의 큰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다음 '주의 만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권오섭 기자)

♣ 다음 주일 찬송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찬송가는 평생 주일학교 일에만 헌신하면서 약 500편의 찬송시를 쓴 줄리아 H. 존스톤(Julia H. Johnston, 1848-1919)에 의하여 작시되었으며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 선생이었던 다니엘 B. 타우너(Daniel B. Townner, 1850-1919)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이 찬송가는 이 세상의 죄가 아무리 깊고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시다 하는 내용으로서, 례 5:20 하반절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

1절 :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떤 양 보혈을 흘렸네
2절 : 죄악은 성난 피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함이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3절 : 죄악이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니 더금도 흐르노는 그 피에 의해서 더 회개 있어야
4절 :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가져다주나 형제여 주 앞에 나로서 더 지체 말고 곧 반이라
후렴 :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에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3박자 곡의 각 프레이즈(모두 4박자씩으로 구성)를 읊듯 하듯 리듬에 맞추어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듯이 부르면 된다. (찬양위원회)

새 · 가 · 축 · 을 · 완 · 영 · 함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9	이한주	1장년부	217	김유화	13 장년부	강진태(13)	225	김종욱	19 청년부	김지영(19)	
210	박정진	2장년부	218	박희수	15 장년부	염복섭(2)	226	조혜영	19 청년부		
211	이인성	2장년부	최근준(2)	219	최영림	16 장년부	227	김지훈	19 청년부		
212	유원자	7 소양부	김준호(7)	220	오은선	19 청년부	228	윤은진	19 대학부	김정진(1)	
213	윤은재	8 소양부	장승태(8)	221	정하규	19 청년부	229	장희미	19 대학부		
214	최성덕	8 장년부	이영희(8)	222	유지영	19 청년부	230	최혜경(2)	230 최혜경	19 대학부	신가혜(19)
215	신용옥	12 장년부	박두희(12)	223	장민수	19 청년부	231	김수연	19 대학부	천하나(19)	
216	김주희	12 장년부	윤영희(12)	224	권혜선	19 청년부	최지은(3)				

※ 찬송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 양호실

8교구 박종연 권사(여 76세) 지난 달 25일 심장 판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 다른 장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신장 투석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장기들의 기능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대화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정유림 성도(남 64세) 간경화로 입원 중인데, 몸이 부어 올라 6일에 부부에서 물을 못냈습니다. 간경이 회복되어 신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심선의 성도(여 68세) 집에서 넘어졌는데 척추 부위를 다쳤습니다. 간경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편묵상

132편-순종

우리가 제자의 길은 무슨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도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가? 시편 132편은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시편 132편 전반부는 언약궐에 얽힌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감독 하에 만들어진(출 25:10-22) 언약궐은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징일 뿐 실제, 즉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궐은 선한 길로도, 악한 길로도 옮겨졌습니다. 길에 걸리고 신사로잡혀 불태웠을 대적할 비밀 병기로 언약궐을 옮기던 때가 있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궐을 찾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라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복이라 있다 힘을 들였더니 나무부에서 찾았노라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상소 앞에서 경배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시 132:6-8). 이와 같은 언약궐의 역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의 위장책과 하나님이 주신 의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환난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환난이 사라지면 잊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루면서 신앙의 결국이 이루어질 약속을 노래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히 살 곳이라 내가 거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주권으로 임하니라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되리되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쁨으로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노라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지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으로 빛나게 하리라 하였노라"(시 132:14-18).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은 하나님의 적들의 패배는 수치가, 하나님을 참 주권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 자들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이룹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된 피신 하나님(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의뢰한 채 일평생 몸을 사리면서 그릇한만 의양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일 뿐입니다.

시편 132편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삶의 기준에 타당하고 마음에 맞는 명령만을 준행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에야 말하며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종의 길을 열어줍니다. 신자들은 예수께서 걸어 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망망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염혜원 기자)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병진'성도를 소개합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종사했고, 유교와 불교 사상에 젖어 살았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생각과 생활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여전히 방황하다가 침실을 이용하여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났고 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은 시작단계이지만 침실을 통해 신교를 하고, 침실로 봉사하러는 분들에게 침술을 가르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물론 사상에 젖어 가정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모두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조카가 기독교인과 결혼하려 했을 때 반대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침술 봉사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생각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나 자신에 대한 간구에 급급하지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70세가 넘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한숙정 통신인)

진짜 내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것

최은빈 (소년부 사랑1과)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첫 번째 출석회 아침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1년에 두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성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집을 나섰다. 친구들은 별로 오지 않았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혜스러웠기 때문이다.

설교 중에 '진짜 내것'이라는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 같다. 그 설교 중에 자고새 이야기가 나온다.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자기 새끼처럼 키운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 되서 점점 크면 자기 어머니 아니란 걸 알고 자고새를 떠나 버린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 내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시 119:56)인데,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렸기 때문이다. 또, 요즈음은 사람들이 약해져서 믿는 자의 분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나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의 그런 면을 고치기로 했다.

첫 번째 도중에는 사제가 생겨 빠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 일을 성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에게 항상 많은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이번 성경학교를 계기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욱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엡 3:18~19)

나는 그분처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끌어안을 수 있는 '무한(無限) 사랑'의 팔을 가지고 있는 이를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분처럼 조금도 변함없이 한번도 멈추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인내하시는 '무궁(無窮) 사랑'을 소유한 이를 본 적이 없다. 그의 사랑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다리를 타며 하늘의 보좌 앞에 오르게 하는 신적(神敎)인 능력과 은사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올릴 수 있는 철저한 사랑(神愛)의 겉손이 담겨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 그의 사랑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을 한 모금 마신 것 뿐이요, 우주 공간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것은 두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며, 오직 그 사랑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축복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을 우리의 조그만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편지집)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분으로 인하여 ...

나는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는 음악도이다. 지금 팔복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학업을 잠시 멈추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의 어려움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내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고, 현 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될 소망을 가져 본다.

연단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矣"(롬 5:3~4)라는 말씀을 가슴에 와닿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야 할 것 같다.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그 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꽃이 일어서서 길에 가자 함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된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이보다 새비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시 139:6~10).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시련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걸었던 믿음의 삶이 나의 간증이 되어, 어려움에 몰린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힘입어라고 격려하게 되리라! 선 연 주(神恩演說)

은혜

임현덕 (목사, 초동부 지도)

마태복음 2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쓰는 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한 일꾼과 잠시 일을 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나 조금 일을 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돈을 주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많이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택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간혹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방을 바꾸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었는데 자기 저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일다는 싸움꾼이며 강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이란 나라에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자신들을 관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 소녀입니다. 그녀는 삼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사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교를 필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자책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책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다윗의 회개

다윗이 죄를 범하고(삼하 11:4-5) 1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십니다(삼하 12:1a).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즉시 책망하지 않고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시 32:3-4). 또 사악한행 다윗의 마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 입니다. '내가 이르기 전에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지. 또, 죄의 무게를 무겁게 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회개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큰 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단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양양새끼를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애중조지하는 양양 새끼를 빼앗아 갔습니다(삼하 12:1b-4).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단의 비유가 남의 일로 알고 정죄 하던 다윗에게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12:7a). 다윗의 무덤덤한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는 나단의 신적 선택이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권위로써 범죄한 다윗을 정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에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나단이 다윗에게 대항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삼하 12:13).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겸손하게 회개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디까지 싸우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죄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히 12:4). 내가 죄에 대해 죄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 생각하고, 그렇지 못함을 깊이 반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마는 믿음을 잃는 자의 모습에 고난스럽습니다. 그 죄로 인해 양심의 고통이 심하나, 내겐 소망이 있음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저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한영희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 1. 일시당회
일시: 12월(수) 수요2부 예배후
장소: 당회실
- 2. 권사 2차의 월례회
일시: 12월(수) 수요1부 예배후
장소: 영아부실
- 3. 남·녀전도회 임직원 영성훈련
일시: 11월(화) 19:00
장소: 감리리홀
대상: 각 교구 남·녀전도회
전 임직원(부/차장 포함)
- 4. 경찰 전도회 3월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베다니홀

결론

- 1. 이승훈 군 (이영근 성도, 장편자 성도의 아들, 광성교회)과 유수영 양(유성기 집사, 김경선 집사의 딸, 4교구) / 3월 14일(금) 12:30, 감리리홀
- 2. 오우택 군 (오영희 집사, 최경순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최희정 양

(최종국 안수집사, 김선이 집사의 딸, 원일교회) / 3월 14일(금) 15:00, 감리리홀

- 3. 오승준 군 (오우일 집사, 윤정희 권사의 아들, 12교구)과 김주희 양 (김학민 씨, 신순호 씨의 딸) / 3월 15일(토) 14:00, 청담해당프라자 (518-8001)

별세

- 1. 이민하 씨
이영일 성도의 장인, 이정자 집사의 부친, 7교구 양사3구역 / 2월 23일 별세, 2월 25일 장례
- 2. 장세환 씨
이순정 권사의 모친, 12교구 / 2월 27일 별세, 3월 1일 장례
- 3. 김광찬 타고 원로 장모
노영길 집사의 장인, 김효정 집사의 부친, 3교구 쌍용우성구역 / 3월 3일 별세, 3월 5일 장례
- 4. 김봉선 타고 집사
강원식 집사의 모친, 김경숙 집사의 시모, 7교구 장미2구역 / 3월 4일 별세, 3월 6일 장례

이벤주 새벽기도회 담당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주일)
설교자/기도자	정현민/이계인	정현민/김태식	정현민/정영덕	정현민/박종용	정현민/임연수	이충철/이수경	안창경/정연희

예배 담당안내 (3/10~3/16)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3/12	수요 I		이종대	전방자	고난 주례(시 27:1-14) 김성관 목사
3/12	수요 II		이희석	정인숙	주님의 은혜(골 5:1-4) 김익환 목사
3/14	금요일회	특별찬양(소프라노는 임마누엘 여성중창단/할렐루야 찬양대)	이성욱		김성관 목사
3/16	I		위원장	이종석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골 4:13-17) 김성관 목사
3/16	II	환관과 필라몬에 드의 마르틴 감리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이수근	김영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골 4:13-17) 방종영 목사
3/16	III	갈보리 산 위에 오/소프라노 장정희(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성기	최무길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골 4:13-17) 김성관 목사
3/16	IV	성자의 귀한 몸 외/무순연(아래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교집	노영한	아브라함의 믿음(골 4:13-25) 이종철 목사
3/16	V	예수 나를 위하여 외/멜로 오케스트라(지도정연희)	김동하	한승규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골 4:13-17) 김성관 목사
3/16	찬양		김용덕	홍성주	복을 위해 서슴말라(마 22:34-35) 서광진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참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9:3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등 특별 예배)	
	IV 오후 1:00(국외 동역회 예배)	본 당
찬양대 예배	V 오후 3:00	본 당
	(본문 이외 드리는 예배)	
	오후 5:00	본 당
주요 예배	1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 회	오후 5: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례
최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회	오후 10:30	오후 10:00 본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운행
월, 목, 목요일 10:00 / 월, 화, 수, 목요일 7:00
(종문장비상 실행)

구 분	시 간	참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소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토, 오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도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S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at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사순절 ·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31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4월 13일부터 4월 18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총현의 성도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자연스럽게 연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기 바란다.

◆ 공동의회

- 1. 일 시: 2003년 3월 9일(월) 4부 예배 후
- 2. 장 소: 본당
- 3. 안 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선출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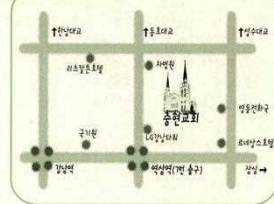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 실시

- 1. 기 간: 2003년 3월 ~ 4월
-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제도의 제외)
-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 4. 준비사항: 사산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총현기도의장

-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에게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시소서.
-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4. 총현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교구별 태산전도회와 교도주변 전도회를 통하여 총현교회와 민족복음화를 구제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두레가 되게 하소서.
-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적극과 열망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사무장로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김태원 임필성 강도용 이 훈 남진우
정성식 김경길 조진국 김종구 최무길
김현채 이창호 차신득 강광남 이종석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용 이재갑
전종용 전종필 이정우 김다남 황영일
한승규 김영수 김한기 원운성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유일 이계인
박익양 이태식 정태우 박종구 권영욱
조종환 배훈식 김명달 이철호 박관섭
최지윤 노영만 박철구 정정길 신상수
강철형 고재순 김영은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이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현 여국근
김교성 이수근 이우진 안창경 방종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석록 고광환
김광곤 위원장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희석 최종철 허종철
전도담당 이정철
역전담당
정연희 신동하 윤인숙 현영준 김연익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조옥자 강덕철 김장진 장혜구 최윤실
천은희 김성준 김경자 이수경
찬양감독 강기규
전집사역자 서순성
전집사역자 김소현
단기선교 강기업
협력선교사 하효섭